

광주 창단 첫 포항전 승리...잔류 기적의 불씨 살렸다

K리그1 원정경기서 2-1 승...지독했던 '무승 징크스' 탈출 11위 강원과 승점 3점 차...남은 2경기 승리 땀 '실낱 희망'

광주FC가 벼랑 끝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썼다. 광주가 7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 1 2021 3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포항스틸러스를 2-1로 이겼다.

많은 의미가 담긴 특별한 승리였다. 광주는 앞선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3-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충격의 3-4 역전패를 기록하면서 강등 벼랑 끝에 섰다. 이번 승리로 광주는 11위 강원과 승점 3점 차를 유지하면서 잔류 불씨를 살렸다.

또 지독했던 '포항 징크스'에서도 탈출했다. 2011시즌 K리그에 뛰어들어 광주는 창단 이래 포항과 21번 맞대결에서 6무1패, 전패를 기록했다. 높은 벽이었던 포항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넘어 서면서 광주는 특별한 승리를 남기게 됐다.

알렉스와 헤이스, 그리고 엄원상이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됐다.

경기 시작과 함께 이순민이 오른쪽 슈팅을 날리면서 공세의 시작을 알렸다.

17분에는 엄원상이 패스를 주고받은 끝에 골키퍼까지 마주했지만, 이번에도 득점에는 실패했다. 전반 22분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프리킥 상황

에서 포항 신진호가 때린 공이 그대로 광주 골대로 향했고, 골키퍼 윤평국의 호수비가 나오면서 실점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전반 31분 상대 페널티지역에 진입하려던 엄원상이 그랜트의 태클에 걸려 넘어졌다. 비디오판독 끝에 그랜트에게 레드카드가 주어지면서 광주가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어 김중우가 프리킥 키커로 섰다. 매섭게 날아간 공은 아쉽게 골대를 맞고 벗어났다.

전반 41분에도 아쉬운 탄성이 나왔다. 김중우가 왼발로 찰라준 공을 잡은 엄원상이 오른쪽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비껴났다.

하지만 전반 종료로 앞두고 광주 벤치에서 기쁨의 환호성이 터졌다.

전반 47분 광주가 연달아 포항 골대를 향해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와 수비수 맞고 두 차례 공이 뒤로 흐른 뒤 광주 수비수 알렉스가 먼 거리에서 때린 오른쪽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다. 골대에 이어 포항 골키퍼 이준을 맞으면서 자책골로 남았지만 감탄사를 부른 시원한 중거리포였다.

후반 2분 다시 한번 탄성이 쏟아졌다.

엄원상과 호흡을 맞춰 포항 진영 왼쪽 측면을 뚫던 헤이스가 오른쪽 중거리 슈팅을 날렸다. 대포알처럼 날아간 공은 이번에도 골대 맞고 포항 골망을 흔들었다.

광주는 후반 42분 강상우의 오른쪽 발리슛에 한 골을 내줬지만, 승리는 내주지 않았다.

몇 차례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연출하고도 득점에는 실패한 엄원상이 승리의 또 다른 주역이 됐다. 전반전에 그랜트의 퇴장을 불렀던 엄원상이 후반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주심의 레드카드를 유도했다. 후반 추가 시간 상대 진영으로 진입한 엄원상을 저지하려던 골키퍼 이준이 퇴장 당했다.

광주는 이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조나탄을 처음 그라운드에 올렸다. 그리고 공격이 재개되자마자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애타게 기다렸던 포항전 첫승이 완성됐다.

목표로 언급했던 포항전 승리를 이끈 김호영 감독은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포항은 우리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상대였다. 그에 대한 부담감을 선수들이 잘 이겨내고 의지와 정신력으로 버텼다"며 "시즌 전 2가지 약속을 했다. 하나는 포항전 승리, 그리고 잔류다. 하나를 이뤘으니 다른 한 약속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역사를 만들 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헤이스(왼쪽)가 2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과의 3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2분 추가골을 넣은 뒤 포효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AI페퍼스 첫 승점 획득...첫승도 머지 않았다

리그 1위 현대건설과 박빙 승부 2-3 아쉽게 졌지만 돌풍 예고

AI페퍼스가 V리그 강팀을 상대로 '희생의 어퍼컷'을 때리며 돌풍을 예고했다.

AI페퍼스는 지난 5일 오후 7시 수원실내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리그 1위' 현대건설과 맞붙었다. 결과는 2-3 (21-25, 25-23, 25-19, 12-25, 13-15). 승점 1점을 얻은 AI페퍼스는 IBK기업은행을 누르고 리그 6위로 올라섰다. V리그 대회 운영요강에 따르면 3-2로 승부가 갈렸을 때 승리한 팀은 2점, 패배한 팀은 1점을 획득한다.

당초 '동네북' 취급을 받을 것이라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였다. 현대건설은 1라운드에서 파죽의 5연승을 거둔 강팀이었으나, 불분한 AI페퍼스의 기세에 밀려 2:3세트를 내리 내주면서야 진땀을 흘렸다.

AI페퍼스는 1라운드에서 현대건설에게 승점을 얻은 유일한 팀이 됐다.

AI페퍼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세'였다. 1세트를 4점차로 내줬던 AI페퍼스는 2세트에서는 접전을 펼쳤다. 2-3점차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현대건설을 괴롭혔고, 23-23까지 쉽게 승기를 내주지 않았다. 이어 박경현의 오픈과 엘리자벳의 백어택으로 연속 득점, 2세트를 가져갔다.

흐름을 탄 AI페퍼스는 3세트에서 엘리자벳과 하혜진, 박경현을 앞세워 상대 공격을 철저하게 막아냈다. AI페퍼스는 3세트에서만 8번의 블로킹을 성공시켰다. 공격이 번번이 막히자 현대건설은 범실을 쏟아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AI페퍼스는 25-19 큰 차이로 현대건설을 압살, 첫 승점을 올렸다.

거칠 것 없는 막내팀의 '패기'는 1라운드 중 여러 차례 증명받았다. 지난 2일 1-3으로 AI페퍼스를 눌렀던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은 "AI페퍼스는 두려움 없이 덤빈다. 경기가 잘 풀리던 정말 겁없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KGC인삼공사 이영택 감독도 지난달 19일 '첫 세트'를 내주고 "젊은 선수들이 분위기가 확 타서 하나씩 무섭게 치고 나간다. 못 받을 볼도 살려내는

등 분위기에 밀려들었다"고 감탄했다.

AI페퍼스는 이날 총 96득점 중 공격 득점으로 45득점(공격 성공률 32.62%)을 올렸다. 현대건설이 총 107득점 중 공격 득점으로 74득점(공격 성공률 45.12%)을 얻은 것에 비하면, 공격력은 한참 낮았다.

하지만 AI페퍼스는 무려 15번의 블로킹 득점을 성공시키며 튼튼한 수비벽을 세웠다. 엘리자벳은 25번 공격을 성공한 데 이어 6번의 블로킹을 성공, 총 31득점으로 양 팀을 통틀어 최다득점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혜진과 최가은, 박경현도 각각 11득점, 8득점, 7득점을 성공시키며 힘을 보태는 등 센터-레프트의 득점력도 차츰 높아지고 있다.

범실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흥국생명전에서 31번의 범실을 쏟아냈던 것과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20번에 그쳤다. 오히려 현대건설이 33번의 범실을 저지르며 해했다.

한편 AI페퍼스는 9일 수원 화정실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과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펼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영암군민속씨름단 오창록 한라급 4연패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사상 처음

'한라급 최강자' 오창록(27·영암군민속씨름단·사진)이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 새 역사를 썼다.

2018년부터 천하장사 대회 한라급 우승을 놓친 적이 없는 오창록은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국내에서 한 선수가 같은 해에 장사 다관왕에 오른 적은 있어도 같은 대회에서 4년 연속 우승은 처음이다.

오창록은 지난 6일 울산광역시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위너스계약 2021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 박정의(용인시청)를 3-0으로 제압했다.

오창록은 올 시즌에만 2월 설날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4월 해남 대회와 9월 추석 대회에 이어 이날까지 4관왕을 달성해 자신의 통산 10번째 한라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16강에서 손준희(울주군청)를 2-0으로 물리친 오창록은 각각 8강과 4강에서 만난 김보경(연수구청)과 김민우(수원시청)에게도 점수를 내주지 않고 연승을 기록했다.

그의 기세는 결승에서도 이어졌다. 결승 첫판 박정의를 발리기로 쓰러뜨린 오창록은 뒤이어 접체기와 원뿔걸기로 3-0 완승을 확정했다.

'우승제조기'로 불리는 영암군민속씨름단 김기



태 감독은 "4년 동안 같은 대회 우승은 오창록이 자기 관리에 철저한 선수라는 것을 말해준다"며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능력과 파워를 키워간다면 꾸준한 정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감독은 "영암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5700여명에 달하는 서포터즈의 응원, 향우회의 격려 등이 씨름단이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성초,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우승

대성초가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우승을 차지했다. 대성초는 최근 첨단야구장에서 끝난 제27회 광

주야구인 동우회장기 겸 2021년 추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에서 화정초를 5-3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화정초가 5일 동우회장기 결승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이번 대회에는 대성초를 포함한 수창초, 서림초, 서석초, 송정동초, 학강초, 화정초 등 7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A·B조로 나눠 대결을 벌였다.

B조에 속한 대성초는 1일 학강초와의 첫 경기에서 10-9로 이겼지만 3일 화정초에 3-6, 패배를 기록했다. B조 2위가 된 대성초는 A조 1위 수창초와 4강에서 만난 8-6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그리고 결승에서 다시 만난 화정초를 상대로 5-3 설욕전을 펼치며 우승팀이 됐다.

<대회 시상 내용>

▲우승 : 대성초 ▲준우승 : 화정초 ▲최우수선수상 : 노지훈(대성초) ▲우수투수상 : 박정민(대성초) ▲타격상 : 이영우(11타수 8안타·0.727·화정초) ▲최다도루상 : 신정윤(8개·화정초) ▲최다타점상 : 하정욱(8타점·서석초) ▲감투상 : 류수길(화정초) ▲미기상 : 홍보현(대성초) ▲감독상 : 신경호(대성초) ▲지도상 : 정미숙(대성초 교장)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풋살대회 파이팅! '제1회 광산구청장기 풋살대회'가 7일 광주 광산구 정덕동 신화스포디움에서 열렸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이용빈(광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내빈들과 광주 지역 16개 풋살 동호회원 200여명 선수단이 안전한 대회를 디딤하고 있다. <광산구 풋살연맹 제공>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이터널스
- 2관 이터널스
- 3관 배틀 2: 펫 데이 비 카니지
- 4관 이터널스
- 5관 이터널스
- 6관 이터널스, 보이스
- 9관 이터널스, 고장난 론
- 7관 씨네캐플
- 8관 씨네캐플

고장난 론, 에프터: 관계의 함정
용과 주근깨 공주, 침묵의 숲
극정판판구는 꽃발라, 거품! 나! 왕국과 영주 내명의왕사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극단 제17회 정기공연
나의 살던 고향
일시 : 2021.11.25.(목)-27.(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11-2759

GAC특별기획공연
김수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11.28.(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